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유명무실'

두세훈 도의원, 교육학예행정분야 현안 질의서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타 직원 업무과중 우려된다면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활용 대체인력 확보해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 2·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382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학예행정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에서 유명무실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지적하며,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등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

간 조성을 위해 육아 간병 등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는 2021년 5월 기준 총 39명의 지방공무원들이 개인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총 32명의 공무원들이 육아나 간병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조정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전북 지역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아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인력운영 상황이 어려운 형편이고, 남은 직원들에게 업무부담 묵인일 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이에, 두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육아나 중대 질병 등 엄격한 사유를 정하고 업무 분야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범주를 정해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질병 고답했다.”

/유호상 기자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통한 환경 유해성 등 검토”

나기학 도의원, 민원 제기중인 '철강슬래그 배출사업장' 찾아 현장활동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 1선거구)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민금 육상 태양광 도로공사 매립 사업의 슬래그 폐기물 처리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철강슬래그 배출사업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새민금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부지내 반입된 제강 슬래그는 사업부지내 공사 차량 진·출입 및 향후 상운입준전개 이후 보수 및 운영 관리 등을 위해 일시로 거칠되는 도로의 보조 기층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도로 기층재는 당초 설계 시 순환골재(약 15만여톤)로 설계됐으나 순환골재의 경우 인근 골재 처리업체의 재고량 부족 등으로 수

급이 불가능해 군산의 세아베스틸과 무상공급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13만t(0.77톤을 반입하면 총 환경 유해성 논란으로 반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나기학 의원은 “새민금의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북도민의 뜨거운 여망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기울이는 시금석인 민족, 조금의 논란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단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며, 보다 나은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

/유호상 기자

김기영 도의원 “도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적절한 운영방안 찾아야”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최근 제38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차지 행정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제품명: 스피드게이트)의 적절한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은 지난해 3월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총 예산 3억 2,330만 원을 들여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지에 설치한 터치식 자동문 시스템으로, 당시 사업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가 그 정도로 긴급한 사업이었는지는 의문이다”며 “예비비는 본 예산 추경 등과 달리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김대중 도의원, 도내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 지원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이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도내 소방기관에서의 급식환경 개선에 나서 눈길을 끈다.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 대한 급식환경 개선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의원은 “많은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작업병에 시달리면서도 도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금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상임위 현장활동

농산경위 “농가 소득 향상 위해 도울 것”

진안 용답승마클럽

마이산김치공장 방문

“승마클럽, 지역 말 산업

저변 확대에 큰 기여

마이산김치공장, 현재

위기 극복의 길 걸어”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15일 진안군 소재 ‘용답승마클럽’과 ‘부귀농협 마이산김치공장’을 방문,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구하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진안군뿐 아니라 전북도 승미산업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기”를 주문했다.

이어, 농산경위들은 29년 전통의

마이산김치를 연구 및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부귀농협 마이산김치공장’을 방문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마이산김치공장’은 토굴형 김치저장고를 이용한 속성시스템 및 속성김치 고온방법 특허출원을 통해 연간 2,053톤의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정호운 의원(전주 1)은 “부귀농협은 배추 계약재배를 통해 농민은 안정적인 출하 및 수입 확보를 마이산김치공장은 안정된 원재료 수급 확보로

현재의 위기 극복 및 지역 상생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협과 농가가 동반 성장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군)은 “마이산김치는 진안군의 청정고랭지 지역에서 자란 배추와 고추로 제조해 아삭거린 식감이 일품으로, HACCP인증 등 다수의 품질인증과 김치품평회를 포함한 다수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마이산김치가 대한민국 대표 김치 생산 및 유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지의정을 기점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농가 소득증대 및 승미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교육위 “코로나19 이후 접근성 향상 위해 화상 연수 확대해 달라”

전북교육연수원 찾아 현장 점검



15일 진행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식의 화상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전북교과학교육원은 올해 제1회주경에서 본관동 증축을 포함, 노후화된 생활관과 그 외 시설 환경 개선사업으로 14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날 전북교과교육원은 화상 연수를 확대해 능력개발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전북교과학교육원 시설 환경 개선과 본관동 신축 현장에서는 “노후화된 생활관 시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꾸赖以지길 바랍니다”며 “개선이 계획된 곳들의 시공이 부실하지 않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행자위 “급변하는 미래환경 변화 대응 전문 인재 키워야”

전북도인재개발원 찾아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는 15일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을 방문해 비대면 화상교육 시설 등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재개발원 시설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정호운 위원회는 이전한 인재개발원은 지난 2010년 남원으로 이전한 인재개발원은 지난 2010년 남원으로 이전한 인재개발원은 444개 과정, 연 1,712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 중 임합교류 67개 과정, 2,410명을 코로나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재개발원은 코로나9 제2호 호남권 생활치료센터로 4월 15일부터 지정 50명이 입소해 운영됐으나, 현재 호남권 환자발생 안정화에 따라 입소자는 없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인재개발원이 단순히 지식 전달의 의미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해 도정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경찬 의원은 “코로나9로 인해 인건비 상승 및 일손 부족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윤준병 국회 의원, 이봉희 국회의원, 박근학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연락사무소장 등 8명이 뜻 모아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주당 고창군연락사무소장 등 8명이 뜻 모아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